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투고

농업과 임업은 공존관계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정병걸



“ 귀농·귀산촌 농림업인 항구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합니다 ”

사과속(Malus) 식물의 원생종은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의 3대륙에 25종 이상이 분포하고 있으나, 현재 재배되고 있는 사과의 기본종은 유럽 동남부 및 아시아 서부에 분포된 원생종 중에서 개량된 종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재래종 사과인 능금을 재배해 왔고, ‘계림유사(鷄林類事)’에 의하면 고려 중엽에는 임금(林檎)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홍만선이 저술한 ‘산림경제’에 사과 재배법의 기록이 남아 있다. 1901년 윤병수 박사가 원산 부근에 과수원을 조성한 이후 신품종육성, 재배법 개발 등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을 접목 육성한 홍로, 시나노골드, 썸머킹, 황옥, 아리수, 감홍, 후지, 피크닉, 쓰가루, 루비에스, 앤비 등 다양한 신품종들을 재배하고 있다.

2020년에 사과 422천톤을 생산·공급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저온, 다습, 서리피해 등 기후변화로 인해 60%정도 생산량의 감소로 올해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과의 적정 수급량은 연간 5십만톤이 적당하다고 한다. 지난해 말 사과 재배면적은 33,789ha로 2022년도 34,603ha에 비해 814ha(2%)가 감소 되었는데, 이는 노후한 과수원의 폐원이 원인이라 한다.

통계청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상고온, 가뭄, 홍수, 한파 등 기후의 변화가 심각하여 2021년말 농가인구가 2,21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3%이며, 65세 이상이 46.8%로써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1차 베이비 붐 세대(1955년~1963년생) 705만명 이후, 2차 베이붐 세대(1964년~1974년생) 954만명(전체 인구의 18.6%)이 은퇴기를 맞아 도시인의 귀농·귀산촌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농림업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16년째 운영하고 있는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은 지난 2월에 개강하여 금년 10월 24일 50여명이 졸업한다. 구성비를 보면 1960년대생이 57%로 가장 많고, 7·8·90년대생 27%, 4·50년대생 16% 순으로 점유하고 있다. 여성도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자(산림공무원)를 비롯한 전직 공무원(농업기술센터, 경찰·소방직 등) 등 前 직업군도 다양하다.

농·산촌 지역에 열악한 농림업인들을 위해 사과 농업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일부분 필요한 것이다. 우선 용어의 쉬운 우리말 표기이다. 과거 일제시대의 용어는 우리말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일본식 용어로 많이 쓰이는 '적(適, 摘)'을 예(例)로 들면, 적수(適樹 → 맞는 수종), 적심(摘芯 → 손자르기), 적과(摘果 → 과일 숙음), 적량(適量 → 알맞은 양), 적당(適當 → 정도에 맞게), 적엽(摘葉 → 잎 따기) 등인데, 우리 말로 고쳐서 쓴다면 MZ 세대들에게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귀농·귀산촌 농림업인 항구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1·2차 베이비 붐 세대(1차: 1955년~1963년생, 2차: 1964년~1974년생)들이 은퇴를 하는 시기를 맞아 인생 이모작이 보편화 되는 이 시점에서 귀농·귀산촌 농림업인들이 사과 과원을 조성할 경우 묘목대 전액 지원, 보조율 상향(70% 이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산촌 인구 유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 농림업 직불금 단가를 물가 인상율을 감안 책정하여 매년 농·임가(家)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농산촌 인구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는 농업과 임업은 공존 관계라고 생각하기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 임계지역)에 소재한 임야 일부를 산지의 산림소득작물(우산고로쇠수액 등)과 연계한 농·임업 복합경영 계획으로 농지(田) 13,000여㎡(4,000여坪)을 이미 구입하였다.

또 사과나무 재배기술을 배우고 익히고자 제16회 아리아리 정선 농업대학에 아들과 함께 입학, 일여 년 동안 사과 재배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많은 지식을 쌓았다. 농업대학장인 최승준 정선군수께 전문 농림업인으로 향한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정선의 명품사과 재배를 위한 부단한 노력은 졸업 후에도 계속할 예정이며, 사과 농사와 임산물 생산의 안정기에 진입하게 되면 6차 산업인 체험 관광, 가공제품 개발 등으로 임산물은 “정(情) 가네 숲”, 사과는 “월대골(月待谷) 사과”를 알려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지난 40여 년간 산림 공직생활에서의 수혜를 국민께 되돌려 보답한다는 신념 아래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공급하여 소멸의 위기에 처한 농·산촌 사회의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에게 청정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박한 꿈을 꾸어 본다.

